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사

전성호 림 연 윤윤진 조일남

민족출판사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전성호 림연 윤윤진 조일남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文学批评史:朝鲜文/全盛镐等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 4

ISBN 978-7-105-08246-9

I. 中… II. 全…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文学批评
史—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54861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5月第1版 2007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7.125

字数: 460千字 定价: 35.00元

ISBN 978-7-105-08246-9 / I·1813(朝192)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5월 제1판 2007년 5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자: 17.125

자수: 460천자 값: 35.00원

ISBN 978-7-105-08246-9 / I·1813(조192)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차 례

서 설

1. 문제의 제기	1
2. 기술목적 및 기술대상	4
3. 기술방법	8

제1장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학

제1절 우리는 누구인가	12
1. 이민의 갈래와 조선족의 형성	12
2. 이주시간에 대한 논의	15
3. 이주민의 류형과 이민사의 영역	18
제2절 조선족의 이중적력사사명과 문학의 성격	20
1. 천입민족의 특징과 조선족의 이중적력사사명	20
2. 조선족문학의 성격	25

제2장 20세기초—1931년의 문학비평

제1절 개관적고찰	29
1. 정치 및 문화적 환경	29
2. 문학비평의 최초의 전개양상	34
3. 《민성보》의 문학비평	38

제2절 망명문인과 조선족문학비평의 단초	
(김택영과 그의 문학비평)	41
1. 한문학의 퇴조와 유학자의 로선	41
2. 망명문인 1번지와 그 의미	45
3. 김택영의 문학비평	50
제3절 유토피아적 지향과 작가론의 효시	
(김중건과 그의 문학비평)	57
1. 런던리에서 리상촌까지	58
2. 대륙의 역사적이미지와 유토피아적실천	62
3. 작가론의 효시—《사상집》	67
제4절 《자아와 비아》의 투쟁철학과 신문학관	
(신채호와 그의 문학비평)	81
1. 신채호의 일대기와 초상	81
2. 신채호의 투쟁철학과 신문학관	87
3. 신채호의 문학비평	93

제3장 1932년—1945년의 문학비평

제1절 개관적고찰	101
1. 력사상황고찰	101
2. 문단의 형성과 문학비평	105
제2절 《북향》—《만선일보》의 문학비평	113
1. 《북향회》, 《북향》지 고찰	113
2. 《북향》지의 문학비평	120
3. 《만선일보》의 문학비평	132
제3절 문학비평의 사조적고찰	138
1. 자주문학론	138
2. 농민문학론	144
3. 협화문학론	148
4. 개척문학론	151

5. 레알리즘문학론	156
6. 초현실주의문학론	162
제4절 작품집들에서 보여지는 문학사상	171
1. 《썩트는 대지》의 문학사상	172
2. 《만주시인집》, 《재만조선시인집》의 문학사상	178
3. 안수길의 문학사상	184
4. 김창걸의 문학사상	192

제4장 1945년—1976년의 문학비평

제1절 개관적고찰	199
1. 다시 제기된 물음—우리는 누구인가?	199
2. 해방공간의 역사개관과 조선족	203
3. 문학활동에 대한 총체적고찰	212
제2절 민족위치의 정립과 문학비평(1945년—1949년)	219
1. 새로운 계몽에 바쳐진 문학비평	219
2. 조선족문학의 성격해명에 바쳐진 문학비평	226
3. 조선족문예사상투쟁의 서막—《발둔덕》에 대한 비판	233
제3절 민족문학의 건설과 문학비평(1950년—1956년)	241
1. 문단의 건설과 군중문예운동에 배합한 문학비평	241
2. 과도시기 정치임무에 배합한 문학비평	250
3. 문학비평방법론과 문학비평척도의 수립	257
4. 문예사상투쟁에 의한 문학비평	263
제4절 계급투쟁 확대화와 문학비평(1957년—1965년)	273
1. 반우파투쟁의 확대화에 의한 문학비평	273
2. 지방민족주의와의 투쟁에 의한 문학비평	281
3. 문예대약진과 새로운 문예방법론의 제기	291
4. 진정한 문학비평의 원류	302
제5절 《문화대혁명》과 문학비평(1966년—1976년)	318

1. <<민족문화혈통론>에 대한 비판>에 바쳐진 문학비평	318
2. <계급투쟁공구>론에 바쳐진 문학비평	326
3. <본보기극 창작원칙>에 바쳐진 문학비평	332

제5장 1977년—1999년의 문학비평

제1절 개관적고찰	339
1. 정치적환경과 그릇된 역사에 대한 번안	339
2. 조선족문학의 정립을 위한 문학비평	351
3. 문학본체의 복원과 관념갱신을 위한 쟁명	357
제2절 역사적인 전환과 문학비평(1977년—1984년)	366
1. 평단의 건립과 17년 문학의 재평가	366
2. 문학에서의 <금지구역> 타파	376
3. 민족문학의 <뿌리찾기>와 문학비평	388
4. 문학분위제로의 회귀와 문학비평	395
제3절 평단의 자각과 문학비평(1985년—1989년)	405
1. <문학과예술>지 출간과 문학비평	405
2. 평단의 자각적인 기획과 문학비평	414
3. 민족, 민족문화연구와 문학비평	423
4. 문학의 사적인 연구와 작가론적연구	431
제4절 문학비평의 다양한 전개(1990년—1999년)	440
1. 사실주의의 전통에 의한 문학비평	440
2. 감각과 인상에 의한 문학비평	447
3. 의식성향연구에 의한 문학비평	455
4. 비평방법의 확대에 의한 문학비평	461
반<우파>투쟁시기의 부분적인 비판문	473
중국 조선족문학비평가 프로필	479
후기	535

서 설

1. 문제의 제기

하나의 민족사회가 영위되고있는 곳에 그 민족을 대변하는 민족문화가 없을수 없고 이러한 민족문화의 바탕이 이루어져있는 곳에 또한 그 민족의 민족문화를 대변하는 민족문학이 없을수 없다. 그리고 일단 하나의 문학작품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접수한 독자들사이에서는 그것이 잘됐다거니 못됐다거니 하면서 어쨌든 서로 의론을 하기마련이니 소박하나마 이러한 의론들을 모두 일러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활동이라 간주할 때 문학이 있는 곳에 또한 문학비평이 없을수 없다.

주지하다싶이 오늘을 살아가고있는 중국의 조선족은 원래부터 중국땅에서 살았던 토착민인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에 흘러들어온 이주민족, 즉 월강민족이다. 다시말한다면 원래 하나의 혈통으로 특징을 이루고있는 조선반도의 겨레들과 한피줄을 타고났고 또 단군 이래로 그 겨레들과 함께 창조한 빛나는 민족문화를 함께 누리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문화로 체질화시켜 살아오다가 국경을 넘어 이주를 한 민족이라는말이다.

중국 조선족의 이민사를 두고 학계에는 《고조선설》, 《당조설》, 《원명설》, 《명말청초설》, 《19세기중엽설》 등 많은 설법이 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것이 《19세기중엽설》이다. 지금을 살고있는 중국 조선족의 가장 이른 1세대들은 19세기중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는 사이¹⁾에 조선반도로부터 월경하여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하면서 이른바 간도 혹은 만주로 속칭되는 중국 동북대지의 이곳저곳에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의 조선민족사회를 이루어놓았다. 거의 대부분 조상의 뼈와 자신의 태를 묻은 고국의 땅에서 더는 살아갈래야 살 아갈수 없어서 쫓겨온 신세인 그들에게 있어서 이때로부터 이 땅은 그들이 생존을 의탁해야 하는 삶의 공간으로, 《제2의 고향》으로 되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후대를 번식하여 대를 이어왔고 일제와 치열한 투쟁도 벌리면서 민족 열을 지켜왔으며 새 중국이 창건된 이후에는 마침내 공민권을 지님으로써 이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국에서 가지고 온 전통민요들을 그대로 부르거나 전통춤을 그대로 추면서 문화생활을 하였고 또 다정히 모여앉아 고국에서 가지고 온 전설이나 민담 등 설화토막들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정신생활을 보충하여왔다. 이렇게 이 땅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포천메나리》가 《만주메나리》로 탈바꿈을 하는것과 같이 자체로 엮은 소박한 농요가락이나 춤사위 등으로 자기들 마음속의 애환을 달래기도 하였고 고국에서 가지고 온 설화토막에 자신의 소박한 창작을 가 첨하여 향토설화를 만들면서 망향의 한을 삭이기도 하였다. 그러

1)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1장 제1절의 《이민사에 대한 새로운 탐구》에서 상세하게 서술함.

니 그 초기의 작품형태는 어떠하였든 중국 조선족의 문학작품창작활동과 문학비평활동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로 럽상섭이 지적한바와 같이 《예나이제나 호미나 바가지밖에 가지고온것이 없으나 그 바가지에는 생활이 담겨져있고 그 호미끝은 거친 정서를 돋구기에 넉넉하니 여기에도 문학은 자랐》²⁾을것이고 소박한 형태의 문학비평도 존재했을것이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던 19세기 중, 후반에 이주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문학과 그 문학비평에 대하여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 될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지니게 된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애국지사들과 문화인들이 애국애족의 문화계몽운동의 목적과 더불어 여러가지 원인으로 고국을 등지고 망명하여 중국땅에 들어와 간도나 만주로 일컬었던 동북지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상해, 남경, 중경, 북경 등 중국 내지의 보다 넓은 지역에 활동무대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후로 김택영, 김중건, 신정, 신채호 등 많은 망명문인들이 나타나 활동을 하였고 최서해, 강경애, 조명희, 럽상섭, 안수길, 리륙사, 김조규, 현경준, 황건 등 고국의 많은 문인들이 잠깐씩이나마 중국땅에 건너와 생활체험을 하였거나 문학활동을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리육, 김창걸, 윤동주 등 향토작가들과 함께 주로 이주민사회를 정감대상과 독자대상으로 한 이주민 특유의 문학을 창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중국의 조선민족 이주민들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작가들에 의한 서사문학작품과 문학비평들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상술한 문인들이 창출한 서사문학작품들과 문학비평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저렇게 고국인 조선반도의 문학과 이어져있었고 또 그 연장선에 있었던것으

2) 럽상섭, 재만조선인작품집 《썩트는 대지》의 서문, 《만선일보》 출판부, 1941년.

로 인정되지만 분명 장소가 바뀌어 중국에서 창조된것이고 지금까지 그 혈맥을 이어 오늘을 살고있는 중국 조선족의 1세대거나 2세대 등 앞선 세대 이주민들을 주요한 독자대상으로 하여 창조한것이다. 그리고 그 문학의 맥이 오늘의 세대에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자신의 문학사를 정리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그들의 문학비평활동을 통한 문학정신사와 문학사상사를 연구하고 정리할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가지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중국 조선족의 문단에서 보면 《중국조선족문학사》³⁾, 《조선족문학연구》⁴⁾ 등을 비롯하여 문학사거나 문학사연구 등 문학작품에 대한 사(史)적인 기술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있지만 문학정신사 내지 문학사상사로 인정되는 문학비평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작업과 정리작업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최근에 박충록문학연구문집2 《중국조선민족문학비평연구》⁵⁾가 출판되어 우리 민족의 문학사상 전반을 연구하는데 사료적인 각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 저서도 어디까지나 저자 개인의 일가견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있고 또 엄격한 의미에서 사적인 정리작업으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기술목적 및 기술대상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본 문학비평사 집필소조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학비평과 그 활동 전반의 역사를 사적인 각도에서 정리하는것을 과제로 삼아 문학비평사 기술작업을 펼친다. 특히 시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선 초기에 우리 민족 문인들이 창출한 문

3) 조성일, 권철 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년 7월.

4) 임범송, 권철 주필,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년 6월.

5) 박충록, 《중국 조선민족문학비평연구》, 민족출판사, 2003년 10월.

학비평과 그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전반을 관통하면서 전개된 우리 민족 문인들의 문학비평과 그 활동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전면적인 시점에서 사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이 문학비평사의 정리와 기술 작업을 진행한다. 그것은 이 작업이 우리 민족의 문학정신과 문학사상을 사적으로 정리하여 점검한다는 그자체의 의의와 함께 이미 씌여진 《중국조선족문학사》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의 중대한 의의도 가지고있을것이라 인정되고 또 앞으로 계속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국 조선족문학의 전면적인 연구에 대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도 동시에 가질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기술대상의 선정에서 문제로 나서는것이 20세기초에 중국에 망명하여 중국에서 최후를 마친 망명문인들의 경우이다. 이러한 망명문인들의 경우, 물론 그들은 중국에 와서 많은 문학평론과 이에 관계되는 글들을 썼는데 이러한 글들이 본 비평사의 기술대상으로 되는것은 아주 자명한 일로서 아무런 의의도 불려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체인 그들의 행각이 아무튼 고국과 이어져있고 사고도 고국과 이어져있는 이상 그들이 쓴 글들에 는 고국에서 이미 썼던것도 있고 고국에서 구상하였다가 중국에 망명한후에 계속하여 쓴것도 있으며 고국에서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것을 중국에 망명하여 완성한것도 있기마련이다. 그리고 많은 망명문인들이 고국에서 구상하였던것을 중국에 망명하여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망명문인들의 사고와 업적을 단지 망명하였던 그 시간에만 기계적으로 맞추어 그전의것을 잘라버리고 중국에 망명한후에 쓴것만을 본 비평사의 기술대상에 넣는다면 이는 인간의 사유법칙을 위반하는것으로서 공정한 처사로 되지 못

할뿐만아니라 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다. 하나의 사고나 사상이 라는것이 일조일석에 형성되거나 어느 한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가 무조건 갈라질수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비하여 본 비평사의 집필소조에서는 이 비평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망명한 문인에 한해서는 이러한 문인들의 글 전부를 기술대상으로 하였다.

문학리론가 박이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문학이 인생을 서술하는 이상,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철학적일수밖에 없는 이상, 한 문학작품이 인생을 진지하게 서술하려면 그럴수록 철학적인 문제가 그 작품의 테마가 될것임은 간단한 논리로써 알수 있다. 바꿔 말해서 문학은 철학이 아니지만 철학적사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인간의 생활을 서술하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철학적문제와 부닥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가를 그려야만 할것이다. 철학이 아닌 문학은 그 작품속에 철학을 내포하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마련한다.⁶⁾

문학을 철학에 연계시키면서 한 박이문의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는 문학작품의 사상성 내지 작가의 문학정신을 두고한 론술이다. 그러니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문학정신을 드러내보이는것을 자기의 한 사명으로 간주하고있는것이 문학비평이라 할때 문학비평사는 그대로 곧 문학사상사로 되고 문학정신사로 되리라는것은 재고할 여지도 없다.

주지하다싶이 19세기중엽으로부터 19세기말까지 한차례로 되는 이주고봉기를 이루었고 20세기 10년대로부터 20세기 30년대까지 또 한차례로 되는 이주고봉기를 이루면서⁷⁾ 이 땅에 천입한 우

6) 박이문, 《문학속의 철학》, 일조사, 1975년, 제5페이지.

7) 최경춘 주필, 《연변인민항일투쟁사》, 연변인민출판사, 1997년, 제1판, 제2페이지 참조.

리 민족 이주민들은 최초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서 팽이를
 박아 거치른 이 땅을 개척하고 움막집이거나 귀틀집을 지으면서
 간신히 정착을 이룩할 때 그 대부분은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
 리고 대대손손으로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것은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은 벌이 넓고 땅이 비옥한 이고장에서 몇
 해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하여 돈을 장만하여가지고는
 다시 조상의 뼈를 묻었고 자신의 태를 묻은 고국으로 돌아가 려
 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제와의 투쟁과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하면서 이 땅에 찾아온 많은 독립투사들이거나 반일운동과 더불어
 우리 민족 이주민들에 대한 애국적 및 문화적 계몽을 목적으
 로 하고 이 땅에 흘러든 지성인들도 월강을 하면서부터 꼭 이 땅
 에 자신의 뼈를 묻고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 대부분은 《8.15》의 해방을 계기로
 선후하여 고국에 돌아갔고 해방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오히려
 적은 부분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그들은 모두 역사적으
 로 월강민족 특유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민족, 즉 고국에 자기들
 의 혈연관계를 둔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선민족문화도 초기로부터 중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문학사상 내지 문학정신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수 없었고 또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학의 성격에도 점차적으
 로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를테면 조
 선권의 중국 조선인 망명문학으로부터 간도 이주민성격의 조선인
 문학으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한 소수민족문학으로
 서의 중국 조선족문학으로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를 일러 《망
 명문학》, 《이민문학》, 《향토문학》, 《중국 조선족문학》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서 중국 조선족문학이라는 테두리에 건국전의

부분을 넣는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는 우리 민족 이주민들이 이 땅에 옮겨오면서부터 《중국 조선족》으로 공인되고 명명된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에 공민권을 가지면서부터 이렇게 명명되었기때문이다.

본 비평사의 집필소조에서는 상술한 상황을 인정하여 고찰,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분류법에 대하여서는 참조하고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저 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모두 중국 조선족문학비평의 기술대상에 넣는데 대하여서는 주저하지 않는다. 비록 건국전에 《중국 조선족》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에 따른 문제일뿐 분명 우리 민족이 쌓아온 력사이기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조선족문학의 지위확립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한 시대의 문학사상이나 한 문인의 문학정신 등이 꼭 문학평론이거나 문학연구의 글들에서만 밝혀지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학비평사가 그대로 곧 문학사상사이고 문학정신사인 이상 본 비평사의 집필소조에서는 기술과정에서 꼭 해당시기의 문학평론이거나 문학연구에 관한 글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시기의 문학사상 내지 문학정신을 대변할수 있는 글이라면 그것이 문학비평글이 아니었다고 해도 모두 기술대상으로 하였다.

3. 기술방법

본 문학비평사는 문학의 한 부분에 대한 사적연구와 정리에 속하는 과제이다. 즉 문학사의 분사에 해당하는 과제이다.

사적연구와 정리, 기술에 있어서 정확한 력사관과 방법론의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본 비평사의 집필진에서는 맑